

“금산분리 완화, 최후의 카드… 기업 민원으로 바꿀 수 없어”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현 규제 속 본업 충실해야”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과는 입장차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담회에서 “(금산분리) 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제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

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새로운 L5

대한민국 농업

NH농협금융

따스한 햇살

깨끗한 물

건강한 땅

농업에 필요하듯

“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업인내안전보험이

무배당

필요합니다

”

농업인내안전보험 무배당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영세농업인*은 70%

*농업경영체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 대비 보장이 강화된 산재형 선택가입 가능

성별, 연령별 구별 없이 단일 보험료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 보장

이 상품은 전국 농축협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교보생명,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자원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가산지급을 할 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예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 또는 배상 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내담자는 고객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일 제2025-00402호(2025.01.24~2026.01.23)

농림축산식품부

내맘같이

NH농협생명

‘위기 속 안정’ 삼성에 이어 현대차 등 사장단인사 예고

LG그룹, 이번주 사장단 인사 예정
권봉석·신학철 2인체제 변화 주목

현대차그룹, 이르면 이번주 재정비
엔지니어 출신 임원기용 힘 받을 듯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위기경영 돌파를 위한 경영 안정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대기업 규제, 노조 리스크 등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안정 속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은 사장단 인사를 통한 미래 대비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한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사업보고를 들은 구광모 LG 회장은 조직 안정화와 미래 혁신 투자에 방점을 둔 인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신학철 LG화학 최고경영자(CEO) 등 2인 체제에 변화가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르면 금주 사장단 인사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현대차그룹 사장단 인사는 2022년 11월 30일, 2023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15일 등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달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의 주요 현안으로 예년보다 늦어

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현대차는 그룹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하는 등 해외 인재에 대한 평가도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미 자동차 고율 관세 부담과 조지아 공장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 등도 해결한 만큼 대규모 조직 변화보다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을 꾀할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처음 진행되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도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총 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과 모바일·가전(DX) 부문의 노태문 사장을 필두로 ‘투톱 체제’를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DS부문의 핵심인 ‘메모리사업부장’ 직을 유지했고,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 부문장으로 올라섰다.

SK그룹과 HD현대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조기 인사’를 단행했다. SK텔레콤 사장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의 정재현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올랐다. 또 SK온은 소재와 제조업 전문성이 높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SKC는 자회사 SK엔펄스를 이끄는 김종우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달 17일 대기업 정기 인사 시작을 알린 HD현대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